
기획논문

“임신과 출산, 그 지식 형성과 재생산”

여성의 임신과 출산 기능은 수천 년 동안 가부장제가 생물학적으로 성차(性差)를 의미화하고 남녀차별을 정당화해온 근거였다. 그런 만큼 임신과 출산은 다양한 지향을 갖는 페미니즘 이론이 계속해서 주목해온 화두였다. 또한 현대에는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면서 다산(多産)에 대한 국가적 요구가 공공연하게 이야기되는가 하면, 유교문명권의 태교 전통이 21세기 자녀교육의 열기로 인해 과도한 조기교육의 형태로 왜곡되는 경향도 보인다. 이처럼 임신과 출산을 둘러싼 각종 관념과 제도는 원시,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계속해서 변해왔으며 지역과 사회마다 같으면서도 다르다.

여기에 기획논문으로 실린 네 편의 글은 20세기 이전의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고고학적, 의학적, 사상적, 문화적 접근을 통해 그 지식의 형성과 재구성 과정을 고찰한 것이다. 임신·출산에 관한 지식이란 단지 산부인과적인 의학적 정보 지식만을 뜻하지 않는다. 지식이란 사회적, 문화적으로 생산되는 일련의 관념과 제도, 의례와 사회구조, 일상생활의 관행 등 인간관계를 구성하는 모든 것이다. 지식이 세계를 지배하는 방식이며 권력관계가 구성되는 수단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임신과 출산에 관한 제반 지식도 특정한 사회적 권력관계를 반영하면서 계속해서 변화해왔다. 이 네 편의 논문은 20세기 페미니즘이 대두하기 이전 임신과 출산에 관한 지식의 일단을 고찰한다.

우선 『고고학 자료를 통해 살펴본 여성의 출산』(고일홍)은 출산이 고고학에서 유의미한 연구주제로 성립되어온 과정을 검토하고, 과거 이른 시기에 존재했던 여러 사회의 출산 지식을 다양한 고고학적 증거들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조선 전기 태교론의 수용과 전개』(김성수)는 동아시아의 태교론이 고대로부터 산모와 태아에 대한 의학적 견해뿐 아니라 이상적 인간형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면서 전개되어 왔다는 점, 특히 조선에서는 16세기에 성리학의 사회적 규범화가 가속화되면서 『소학』과 함께 재발견되었다고 주장한다. 『본성-양육 논쟁으로 본 『태교신기』』(이경하)는 ‘태’의 가변성에 대한 주장이 서구의 본성-양육 논쟁이 도달한 결론이나 현대 유전학이 이룬 성과와 맞닿아 있다는 점, 또한 『태교신기』가 ‘태’의 생물학적·유전학적 측면에도 주목함으로써, 주로 도덕적 문제에 치중했던 유교 인성론이나 기존의 태교론과는 차별화된 문제 의식을 담고 있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다시 읽는 『프랑켄슈타인』』(손현주)은 여성작가인 메리 셸리가 실험실에서 인간을 창조하려는 프랑켄슈타인의 시도를 18세기 당시에 유행하던 임신 출산에 관한 부인과적 의학 담론의 언어를 사용해 묘사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이성과 과학을 신봉하는 산업사회의 문턱에서 잉태된 이 새로운 프로메테우스의 신화가 태생부터 모순되고 전복적임을 드러낸다고 해석하였다.

이 네 편의 논문은 기획 및 집필 과정에서 『인문논총』의 집담회 지원을 받았으며, 2013년 12월 20일(금)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HK문명연구사업단이 주최한 ‘제19회 문명연구 심포지엄’에서 발표한바 있고, 소정의 심사를 거쳐 제71권 제1호에 기획논문으로 게재됨을 밝힌다. 집담회와 심포지엄에 함께 참여했던 이미숙의 논문 “전근대 일본의 ‘출산 부정’과 ‘여성 부정’”은 『인문논총』 제70집에 수록되었다.

이 경 하